

총장-뉴스레터 – 94 (2024-11-22)

여호수아 사역의 마무리 (여호수아 22-24 장)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31)

사람들이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에 장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긴 부분이 그 목표에 다다른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다는 표가 생긴 것이고, 출애굽이 마침내 마무리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자신의 생애를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모세의 경우와는 달리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장사지낸다.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에 대해 증언할 사람들마저 죽고 나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이 31 절에 암시되어 있다.

하나됨을 위한 갈등 (22 장)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이 약속을 지켜 충성한 것을 치하한다. 이제 변방으로 돌아가는 이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근본 계명을 잘 지키도록 특별히 단단히 일러준다.

그런데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공인된 실로에서 단을 쌓지 않고 유다 땅과 벤야민 지파 땅 사이에 있는 ‘글릴롯’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에는 오직 한 곳 ‘실로’에서만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일이므로 이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각 지파들 사이에 거둬하여 갈라져 나가려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나로 묶으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있는 온갖 다툼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로 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마지막 훈계 (23 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므로 지도자들을 불러 고별사를 하였다. 그의 고별사는 유언의 성격을 띤다. 이 고별사는 온 이스라엘 상대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백성의 대표자들만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명심하고 있는바, 곧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백성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단히 일러준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 때문에 생길 유혹에 맞서도록 이스라엘은 굳게 무장해야 한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 피를 섞지 말라’고 당부한다. 곧 가나안 사람들과 인척관계를 매지 말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과만 관계를 맺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세겜대회 (24 장)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열 두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다. 23 장의 고별사와는 달리 24 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대화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고별행사를 치르고 있다기 보다는 땅 분배를 마무리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언약 체결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맨 끝에 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잔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한다.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이들에게서 돌아서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방 신들의 형상이나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엄숙한 이 예식을 통해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한다.

생각하기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징표로서 큰 돌을 세웠다. 돌은 장래의 세대들에게 그들이 넘겨 받은 의무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는 백성이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 아마도 언약 갱신을 하러 모인다는 것을 전제한다. 율법 책에는 율례와 법도를 기록해 돌 뿐만 아니라, 언약 체결의 과정도 낱낱이 적어 둔다. 이 모임이 세겜에 있는 성소에서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결국 여호수아서의 모든 가나안 정복기사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선배들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부모의 부탁이나 유언마저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 네 인생들이다.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선조들의 훌륭한 뜻을 받들어 성경말씀을 상고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